

http://dx.doi.org/10.17703/JCCT.2023.9.5.185

JCCT 2023-9-23

## 요양병원 간호사의 임종간호경험

# End-of-life Care Experiences of Long-Term Care Hospital Nurses

여형남\*

Yeong-Nam, Yeo\*

**요약** 현재 우리나라 요양병원은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는 주로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들로서 장기요양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 임종하는 경우가 많아 요양병원에서의 임종간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임종간호에 대한 연구로는 주로 양적연구들로서 임종간호 경험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악하기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 요양병원 간호사의 임종환자 간호경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현상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기술하고 이해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C 시에 위치한 요양병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7명을 선정하였다. 연구방법은 심층 인터뷰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인터뷰 자료는 Giorgi의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임종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 ‘연명에 대한 양가 감정’, ‘요양병원의 임종간호에 대한 현실’,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양병원 간호사의 임종간호 태도를 변화시키고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임종간호 보수교육 및 중재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임종간호, 경험, 요양병원, 간호사, 질적연구

**Abstract** Currently, the number of Long-Term Care Hospital in Korea is continuously increasing with the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Patients admitted to Long-Term Care Hospital are mainly elderly with chronic diseases, and because they are for long-term care, they often die in Long-Term Care Hospital, and the importance of end-of-life care is gradually increasing. In spite of these characteristics Studies on end-of-life care for nurses in Long-Term Care Hospital are mainly quantitative studies, and there is a limit to in-depth understanding of end-of-life care experienc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Long-Term Care Hospital nurses' nursing experience of end-of-life patients through a phenomenological method, and to describe and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phenomenon in depth.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7 nurses who had worked for more than 6 months at a nursing hospital located in C city. The research method was in-depth interviews,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December 2021 to March 2022. The interview date were analyzed by Giorgi's phenomenological method. As a result of the study, ‘nurses’ attitude toward end-of-life care’, ‘ambivalence toward life prolongation’, ‘reality of end-of-life care in Long-Term Care Hospital’, and ‘reflection on life and death’ were found.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End-of-life nursing Continuing education and interventional education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to change Long-Term Care Hospital nurses' end-of-life care attitudes and improve coping skills.

**Key words** : End-of-life care, Experience, Hospital, Long-Term Care, Nurse, Qualitative research

\*정회원,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접수일: 2023년 7월 30일, 수정완료일: 2023년 8월 21일  
게재확정일: 2023년 9월 1일

Received: July 30, 2023 / Revised: August 21, 2023

Accepted: September 1, 2023

\*Corresponding Author: yhn072 @ naver.com

Dept. of Nursing, College of Nursing, Changshin Univ,  
Korea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요양병원은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2018년 1,464개[1]로, 2012년 593개와 비교하면 약 2배가량 증가하였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는 주로 만성 질환을 가진 노인들로서 대부분 치료보다는 장기 요양을 목적으로 입원하기 때문에[2], 가정으로 돌아가기보다 요양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있어[3], 요양병원에서의 임종간호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환자조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퇴원환자 1,000명 중 65세 이상 노인환자 사망으로 인한 경우가 요양병원이 425명으로 상급종합병원 80명과 종합병원 90명에 비해 약 4~5배 정도로 많은 것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4]. 요양병원을 노인들이 임종을 대기하는 장소로도 해석하고[5]. 요양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추세이므로 요양병원에서 노인 환자들에게 질적인 임종간호를 위한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한 임종간호 실무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5].

우리나라 요양병원 임종간호를 다룬 연구들에서 간호사는 임상현장에서 임종환자를 간호해야 하는 상황에 자주 노출되기 때문에[6], 임종간호 스트레스는 요양병원 간호사가 일반 병동 간호사보다 더 높고[7], 좋은 죽음을 맞이하도록 노인환자를 돕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하였다[5]. 또한 임종간호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보수교육 제도의 시급성을 언급하였다[8].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노인환자의 요양병원에서 임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종간호 대비가 미비함을 짐작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우리나라 간호사들의 임종간호에 관한 국내외 질적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중환자 간호사[9][10]나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11][12], 호스피스 간호사[13][14]등을 대상으로 임종간호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임종간호에 대한 연구로는 주로 양적연구들로서 [15][16], 임종간호 경험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악하기에 제한이 있다. 또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노인임종에 대한 질적연구가 소수 이루어졌지만, 연구 현상이 임종간호가 아닌 환자 죽음[5]과 임종[17]에 초점을 두고 있어 임종간호에 대한 질적연구는 이들 연구와 차이가 있을 것으

로 본다.

질적연구 중에서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요양병원 간호사가 경험하는 임종간호 경험에 대하여 공통적인 의미를 기술하고 그 본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임종간호 경험에 대한 의미 구조와 본질을 밝히기 위하여 Giorgi[18]의 현상학적 연구 연구방법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는 추후 요양병원 간호사의 임종간호체계 마련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2. 연구목적

연구의 목적은 요양병원 간호사의 임종간호 경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기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질문은 ‘요양병원 간호사의 임종환자 간호경험의 의미와 본질은 무엇인가?’이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Giorgi[18]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요양병원 간호사의 임종간호 경험에 대한 의미와 본질을 기술하기 위한 질적 연구이다.

### 2. 연구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C시에 위치한 요양병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7명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를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자는 면담 전 모든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자료수집방법, 익명성과 비밀보장에 관해 설명하였다. 면담내용은 녹음되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과 연구 과정 중 원한다면 언제든지 연구참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설명 후 연구동의서에 자발적으로 서명을 받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Table 1.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성별	교육정도	병원경력	직책
1	여	대졸	5	간호사
2	여	대졸	5	간호사
3	여	대졸	10	간호사
4	여	전문대졸	7	간호사
5	여	전문대졸	5	간호사
6	여	대졸	6	간호사
7	여	전문대졸	5	간호사

### 3 자료수집방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먼저 전화통화로 참여자와 면담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하였고 개별적으로 심층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 동의를 허락받은 후 면담 내용을 현장기록 노트에 메모하거나 녹음하고 면담 당일 참여자의 녹음 내용을 그대로를 필사하여 연구자 개인 컴퓨터에 입력하였다.

연구 질문은 ‘요양병원에서 임종하는 환자를 간호하면서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라는 개방적인 질문으로 시작하였고 주제에 대한 참여자의 솔직한 진술을 얻기 위하여 연구자는 참여자의 진술에 과도한 반응을 자제하면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자료는 8번째 참여자와의 면담 이후 새로운 내용 없이 유사한 개념이 도출되어 자료가 포화상태 되었다고 판단하여 자료수집을 종료하였다. 면담 회수는 참여자 별 1~2회였으며 1회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60분~80분이었다.

### 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임종환자 간호경험을 파악하기 위하여 Giorgi[18]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을 근거로 분석하였다.

먼저, 면담 내용과 작성된 메모, 필사 자료를 반복해서 천천히 읽으면서 전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주제인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참여자가 진술한 내용 하나하나 의미를 분석하면서 의미단위를 구분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임종환자 간호경험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면서 구분한 의미단위를 학문적 용어로 전환하여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자가 경험한 의미 단위를 종합하여 일반

적인 이론적 언어로 통합하여 의미구조를 확인하였다.

### 5.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

본 연구는 Guba와 Lincoln[19]의 엄밀성 평가 기준에 따라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첫째 연구의 사실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분석된 내용을 기술한 후 참여자 중 3명에게 그 내용이 본인의 경험내용과 동일하다는 진술을 받았다. 또한 적용성(applicability)을 확보를 위해 진술이 포화가 될 때까지 면담을 지속하였으며,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요양병원의 간호사에게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공감을 확인하였다.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간호학과 교수 1인에게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고, 분석한 의미에 관하여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합의된 결과를 도출하여 연구의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에 대한 연구자의 가정, 편견, 선 이해 등을 배제하기 위하여, 면담 내용을 들으면서 연구자의 선입견이 반영된 진행이 없었는지 지속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중립성을 확보하였다.

## III. 연구결과

7명의 참여자로부터 심층 면담을 통하여 요양병원 간호사의 임종환자 간호경험의 의미를 분석한 결과 4개의 범주와 11개의 구성 요소가 도출되었다. 요양병원 간호사의 임종환자 간호경험은 ‘임종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 ‘연명에 대한 양가감정’, ‘요양병원의 임종간호에 대한 현실’,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로 나타났다. <표 2>

표 2. 요양병원 간호사의 임종간호경험  
 Table 2. End-of-life Care Experiences of Long-Term Care Hospital Nurses

범주	구성요소
임종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	임종간호에 대한 두려움
	임종간호의 좌절감
	임종간호시 감정이입
연명에 대한 양가감정	연명치료와 중단의 딜레마
	보호자의 적극적인 연명치료에 대한 안타까움
	연명치료를 위한 반복되는 입·퇴원의 악순환
요양병원의 임종간호에 대한 현실	임종간호에 대한 대처능력 부족
	연명치료에 대한 인식부족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	좋은 죽음을 위한 임종간호의 한계
	좋은 죽음에 대한 의미 되새김 앞으로의 삶에 대한 준비

1. 임종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

1) 임종간호에 대한 두려움

참여자들은 임종이라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임종간호에 대한 경험 부족과 숙련도가 부족하여 임종환자를 간호할 때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임종이라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간호를 해야 할지 정말 두려워요.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이 경력자면 맘이 조금 편안해지고 저보다 경력이 적거나 경력이 많아도 일의 숙련도가 부족한 선생님과 같이 근무하게 되면 근무 내내 긴장되고 힘들어요. (참여자 1)*

2) 임종간호의 좌절감

참여자들은 노인환자를 간호하면서 전혀 컨디션이 나빠질 징후가 없었던 환자가 갑자기 상태가 나빠져 임종하시는 경우에는 스스로 우울감과 좌절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요양 차 입원하시고 컨디션이 괜찮았는데 갑자기 MI attack이라든지 흡인되어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임종하시는 경우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이라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있고 적극적으로 응급대처를 했지만 임종하는 경우 나 자신을 타타하기도 하고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참여자 2)*

3) 임종간호시 감정이입

참여자들은 오랫동안 입원해 계시면서 동고동락 하셨던 환자분들이 임종하게 되면 감정이입이 되어 마음 아파하였고 오랫동안 우울한 기분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오랫동안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다 보니 환자분이 임종하시게 되면 정이 많이 들어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이 임종하신 것 같이 감정이입이 너무 많이 돼서 민망할 정도 많이 올랐던 기억이 나는데. 내 가족이 돌아가신 것 같이 마음이 아프고 며칠 우울한 기분이 많이 들었어요. (참여자 6)*

2. 연명에 대한 양가감정

1) 연명치료와 중단의 딜레마

참여자들은 환자분들의 컨디션이 나빠지면서 임종이 다가오는 증상을 보이면 솔직히 의미 없어 보이는 치료를 계속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도록 도와드리는 게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많은 갈등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요양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치료는 거의 근본치료가 아니라 증상 치료이기 때문에 호전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컨디션이 극도로 나빠져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증상 완화를 위한 수액을 달기위해 혈관을 찌르고 아니면 c-라인을 잡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연장되는 삶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오히려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분들이 안타까워요. (참여자 4)*

2) 보호자의 적극적인 연명치료에 대한 안타까움

참여자들은 환자분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도 환자분의 치료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자들의 노력을 보면 이해는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하였다.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아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보면 의료인 입장에서 간호사 입장에서 그 만하시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가 정말 못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간호하면서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3)*

3) 연명치료를 위한 반복되는 입·퇴원의 악순환

참여자들은 환자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나빠지면 3차 급성기 병원으로 가서서 위중한 상태를 치료하고 다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호전되지 않는 입·퇴원의 반복으로 고생하시다 결국 임종하시는 모습에 안타까워하였다.

*벼슬중으로 입원해 계셨던 중 위상으로 전 절제술하고 또 폐로 전의돼서 너무 가래가 많고 제대로 뱉어 내지 못하다 보니 수시로 폐렴이 발생해서 열이 나면 급성기 병원으로 전원 하시는 거예요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3차 급성기 병원으로 전원 다녀오시더니 마지막 임종하실 때 폐혈중으로 돌아가시는 모습 보니 마음이 많이 아팠죠. (참여자 7)*

3. 요양병원의 임종간호에 대한 현실

1) 임종간호에 대한 대처능력 부족

참여자들은 급성기 병원에서 퇴사 후 이직한 임상간호 경험이 부족한 간호사들과 요양병원의 간호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임종환자나 컨디션이 갑자기 나빠지는 환자들에 대한 대처능력 부족으로 임종간호에 대한 부담감을 가진다고 하였다.

*요양병원에는 나이가 많고 경력이 많은 간호사들이 근무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에는 급성기 대학병원에서 3~6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입사하는 간호사들도 많고 하다 보니 1년 미만인 간호사들*

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임상경험 부족으로 임종환자나 컨디션 갑자기 안 좋은 환자들을 간호하기에 힘들어하죠. 그리고 요양병원은 환자가 노인이고 의료 인력도 부족하고 대처 능력도 부족하다 보니 임종환자 간호에 부족함이 많이 있죠. (참여자 2)

## 2) 연명치료에 대한 인식 부족

참여자들은 요양병원이 호스피스 병동과 달리 임종환자에게 좋은 죽음을 위한 진인적인 간호가 아닌 증상에 따른 치료와 간호로 인해 환자나 보호자가 긴 병에 지쳐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전 연명치료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동방 예의지국이라 환자분 컨디션이 좋지 않고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어도 보호자들이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보호자들을 보고 있으면 안타깝죠. 지금 호스피스 병동 같은 경우에는 사전 연명치료를 작성하고 환자분에게 좋은 죽음으로 통증 없이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요양병원에는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깝네요. (참여자 2)

## 3) 좋은 죽음을 위한 임종간호의 한계

참여자들은 호스피스 병동은 진단을 받고 좋은 죽음을 위해 증상관리와 심리 사회 영적 간호가 주로 이루어지는 반면 요양병원은 심리 사회 영적 간호 보다는 증상에 대한 치료가 주로 이루어지다가 고통스럽게 임종을 맞이하는 임종간호의 한계를 경험하였다.

호스피스 병동은 환자분이나 보호자들이 병을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준비하면서 맞이하는 죽음이라면 요양병원은 예고되지 않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안타깝네요.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반복하면서 삶의 정리 시간이 없다는 게 안타깝죠. (참여자 4)

## 4.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

### 1) 좋은 죽음에 대해 생각함

참여자들은 요양병원 환자의 임종을 경험하면서 죽음을 삶의 한 과정으로서 받아들이게 되고 좋은 죽음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다.

요양병원에 임종 환자를 간호하다 보면 죽음을 자연스럽게 삶의 과정으로 인식하게 돼요. 임종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마무리하는 것이고 또한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좋은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참여자 1)

### 2) 앞으로의 삶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됨

참여자들은 임종환자를 지켜보면서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게 되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를 준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임종환자들을 간호 하면서 죽음에 대해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임종환자를 지켜보면 남의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건강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돌아가시는 어르신들 보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 욕심내서 살지 않고 건강관리 잘하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게 행복한 삶일 것 같아요. (참여자 7)

## IV. 논의

연구결과 요양병원 간호사의 임종환자 간호 경험은 ‘임종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 ‘연명에 대한 양가감정’, ‘요양병원의 임종간호에 대한 현실’,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로 나타났다.

첫 번째 범주인 ‘임종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에 포함되는 경험의 구조를 보면 참여자들은 임종이라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임종간호에 대한 경험 부족과 숙련도 부족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갑작스러운 응급상황으로 인한 임종에 대해 우울감과 좌절감을 느끼며, 임종에 대해 감정이입이 되어 마음 아파하고 우울한 기분을 가지게 되는 것을 알았다. 이는 임종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의 태도로 긍정적, 부정적 감정을 가진다는 선행연구와 비슷한 맥락이다[20].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요양병원 간호사의 임종 태도는 임종환자에게 제공하는 돌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임종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임종 환자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게 되므로[21] 간호사들이 임종간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요양병원 간호사가 임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임종 관련 간호교육을 통해 임종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범주인 ‘연명에 대한 양가감정’에 포함되는 경험의 구조를 보면 참여자들은 의료진과 보호자의 의견에 따라 행해지는 연명치료와 중단에 대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의미 없어 보이는 연명치료를 위해 반복되는 입·퇴원의 악순환으로 고통스럽게 임종하시는 환자분을 보면서 연명에 대한 양가감정을 느끼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임종간호에 대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의학적인 관점의 생명 연장과 돌봄 관점의 편안한 죽음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11].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요양병원 간호사가 죽음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임종환자 교육을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상담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범주인 ‘요양병원의 임종간호에 대한 현실’에 포함되는 경험의 구조를 보면 참여자들은 요양병원에 대한 경험 부족과 간호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임종환자 간호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며 요양병원은 호스피스 병동과 달리 심리 사회 영적 간호보다는 증상에 대한 치료가 주로 이루어지다가 고통스럽게 임종을 맞이하는 임종간호의 한계를 느낀다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부담감은 임종간호 스트레스를 높이고[22] 요양병원 간호 서비스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임종간호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임종간호 교육 프로그램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들에게 인식된 좋은 죽음이 임종 기간이 짧고 잠을 자는 듯한 편안한 죽음이라면[23], 편안한 임종을 돕는 것은 임종간호의 주요한 과제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요양병원에서도 환자의 편안한 죽음을 도울 수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방안도 숙고되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범주인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에 포함되는 경험의 구조를 보면 참여자들은 오랜 시간 환자의 임종을 경험하면서 차츰 환자의 죽음을 삶의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며 미래를 계획하고 삶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노인 환자의 임종은 종합병원 간호사들이 겪는 갑작스러운 환자의 임종이 아니라, 환자들과 장기간 함께 하면서 예측되는 현상이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참여자들은 환자의 죽음을 삶의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는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 임종간호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5][24]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임종환자 간호 경험의

미가 무엇인지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요양병원 간호사의 임종간호체계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 참여자는 C 시에 위치한 요양병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7명이 참여하였다.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임종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 ‘연명에 대한 양가감정’, ‘요양병원의 임종간호에 대한 현실’,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간호사는 임종이라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임종간호에 대한 두려움과 예기치 못한 환자의 임종에 우울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오랫동안 정이 많이 들었던 환자분의 임종에 감정이입이 되어 마음 아파하며 급성기 병원과 다른 임종간호에 대한 태도를 가진다. 또한 의료진과 가족들의 적극적인 연명 치료에 대한 양가감정과 좋은 죽음을 위한 임종간호의 한계를 느낀다. 이러한 경험들은 요양병원 간호사들의 업무 가중과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이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요양병원에서도 체계적인 임종간호교육이 강화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요양병원 간호사가 전문적인 임종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임종간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참여자가 모두 여성이어서 남성 간호사가 경험한 임종간호를 포함하지 못하여 향후 성별에 따른 임종간호 경험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또한 본 연구 참여자들은 최소 5년 이상의 임상경력자들이지만 급성기 병원에서 이직한 경력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추후 요양병원 경력만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 References

- [1] <http://kostat.go.kr/wnsearch/search.jsp>, Retrieved 2019.10.12.
- [2] K.W. Kim, and S.N. Jang, "Characteristics and mortality risk factors in geriatric hospital patients visiting one region-wide emergency depart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ol.27, No. 4, pp. 327-336, 2016
- [3] G.S. Kang, and J.S. Kim, "Change of life of the

- older due to social admission in long-term care hospital.”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 37, No. 1, pp. 103–123, 2017
- [4] S.R. Do, and E.S. S, “Implications and increasement of medical care use of the elderly.” *Health and Welfare Issue & Focus*, Vol.167, No. 5, pp. 1–8. 2012.
- [5] M.J. Yi, and J.S. Lee, “Nurses’ Experiences of the death of patients in geriatric hospital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45, No. 4, pp. 513–522, 2015.
- [6] Peters, R. Cant, S. Payne, M. O’Connor, F. McDermott, K.. Hood, J. Morphet, and K. Shimoinaba, “How death anxiety impacts nurses’ caring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A review of literature,” *Open Journal of Nursing*, Vol. 7, pp. 14–21, 2013. DOI: 10.2174/1874434601307010014
- [7] J.H. Lee, and J.S. Park, “End of life care stress and Nursing Work Environment in Geriatric Hospitals Nurses affect burn out.”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6, pp. 449–458, 2017.
- [8] W.S. Kim, H.H. Cho, and S.H. Kwon, “The influence of terminal care performance, death anxiety and self-esteem on terminal care stress of geriatric hospital nurses.”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Vol. 19, No. 2, pp. 154–162, 2016. <https://doi.org/10.14475/kjhpc.2016.19.2.154>
- [9] M.S. Yi, “Nurses’ experience of caring for dying patients in hospital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Vol. 33, No. 5, pp. 553–561, 2003.
- [10] M.O. Cho, “Experiences of icu nurses on temporality and spatiality in caring for dying patients.”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Vol. 11, No. 2, pp. 80–93. 2010.
- [11] H.J. Kang, and K.S. Bang,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Nurses’ Experience in Caring for Infants Who Are Dying.”,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 19, No. 4, pp. 252–261, 2013. <https://doi.org/10.4094/chnr.2013.19.4.252>
- [12] Y.M. Kim, H.Y. Yoon, Y.J. Choi, and D.S. Shin, “Neonatal ICU Nurses’ Coping with Death of High Risk Newborn.” *Journal of Hwalth Information and Statistics*, Vol. 44, No. 2, pp. 103–110, 2019. <https://doi.org/10.21032/jhis.2019.44.2.103>
- [13] B.S. Lee, and S.Y. Kwak, “Experience of Spiritual Conflict in Hospice Nurses: A Phenomenological Stud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47 No. 1, pp. 98–109, 2017. <https://doi.org/10.4040/jkan.2017.47.1.98>
- [14] W.S. Kim, H.H. Cho, and S.H. Kwon, “The influence of terminal care performance, death anxiety and self-esteem on terminal care stress of geriatric hospital nurses.”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Vol. 19, No. 2, pp. 154–162. 2016. <https://doi.org/10.14475/kjhpc.2016.19.2.154>
- [15] E.H. Park, and N.Y. Kim, “The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attitudes toward advance directive, and death anxiety on terminal care performance of nurses in long-term care hospital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 30, No. 2, pp. 183–193, 2018. <https://doi.org/10.7475/kjan.2018.30.2.183>
- [16] R.J. Lee, and H.S. Park, “Death anxiety and terminal care performance of nurses at long term care hospitals.”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Vol. 20, No .1, pp. 37–45, 2017. <https://doi.org/10.14475/kjhpc.2017.20.1.37>
- [17] S.Y. Ahn, H.K. Kim, E.S. Kong, N.C. Kim, C.G. Kim, S.O. Chang, et al. “Nurses’ experience of end-of life care for older adult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Vol. 16, No. 2, pp. 118–129, 2014. <https://doi.org/10.17079/jkgn.2014.16.2.118>
- [18] A. Giorgi, *Advanced workshop on the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Seoul: Qualitative research center. 2004.
- [19] Y. S. Lincoln, and E. G. Guba,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1 985.
- [20] H.J. Park, and E.H. Kang, “Factors Influencing Nurses’ Attitudes Toward Terminal Care.” *Journal of Korean Critical Care Nursing* Vol. 13, No. 1, pp. 76–86, 2020. <https://doi.org/10.34250/jkccn.2020.13.1.76>
- [21] M.J. Ko, and S.H. Moon, “Factors Influencing Performance of End-of-life Care by ICU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Vol. 25, No. 4, pp. 327–337, 2016. <https://doi.org/10.12934/jkpmhn.2016.25.4.327> Published online January 17, 2017.
- [22] Y.H. Jeong, and K.J. June, “End of Life Care Competencies and Terminal Care Stress of Nurses in Long Term Care Hospitals.”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Vol. 22, No. 3 pp. 125–133, 2019, <https://doi.org/10.14475/kjhpc.2019.22.3.125>
- [23] M.S. Lee, and Y.J. Kim, “Good death recognized by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3, No. 6, pp. 283-299. 2013.  
<https://doi.org/10.5392/JKCA.2013.13.06.283>

- [24]S.Y, Ahn, H.K, Kim, E.S, Kong, N.C, Kim, C.G,  
Kim, S.O, Changet al. "Nurses' experience of  
end-of life care for older adult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Vol. 16, No. 2, pp.  
118-129. 2014. [https://doi.org/10.17079/jkgn.2014.16.  
2.118](https://doi.org/10.17079/jkgn.2014.16.2.118)

※ 이 논문은 2022년도 창신대학교의 연구지  
원에 의하여 연구 되었음